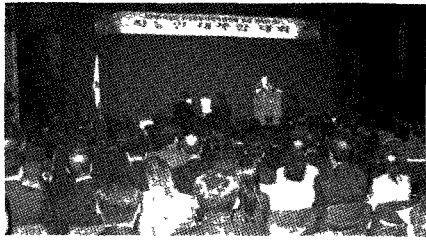


에너지·신

직능단체총연합회 통합대회 개최



직능인, 정부지원 지원육성 보장

(사)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총회장 문상주)는 지난 23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직능단체총연합회 통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통합대회는 지난 3월 2일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직능인에게 각종 정보·교육 연수상담 등 직능인 지원육성에 관한 정부지원의 보장이 확정됨을 축하함과 동시에 두 개로 나누어져있던 직능단체가 하나로 다시 통합해 효과적인 법시행령을 제정, 직능인들의 권익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개최된 자리였다.

올들어 국내 석유소비 5년내 최저치

공공부문 소비는 오히려 증가

올들어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석유소비가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석유소비는 오히려 4.9% 증가했다.

28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2월까지 국내 석유소비량은 1월 7천94만4천배럴, 2월 6천263만8천배럴로 총1억3천258만2천배럴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3% 감소했다. 이는 1, 2월 석유소비량으로는 지난 99년 1억2천753만4천배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석유소비 감소는 2001년 이후 3년만이다.

2000년 소비량은 1억3천541만8천배럴이며 2001년 1억3천411만4천배럴, 2002년 1억3천558만3천배럴, 작년 1억4천100만6천배럴이었다.

특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가습적인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나타냈던 지난달의 석유소비 감소율은 12.3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산업별 소비는 발전용(-47.06%), 가정(-13.42%), 항공(-25.95%), 철강(-32.68%), 건설(-25.30%), 농수산(-17.30%), 섬유(-10.80%) 등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 고유가에 따른 기업 및 서민경제의 충격이 예상보다 컸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공공부문 석유제품 소비는 지난 달 오히려 12.51%나 증가했고 1-2월 소비량도 군수용 항공유 소비가 32.6% 늘어나면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4.9% 늘

었다. 주요 제품별은 등유가 21.52%나 줄어 감소 폭이 가장 두드러졌고 휘발유(-14.30%), 윤활유(-12.36%), 경유(-9.23%), 병커G유(-9.02%) 등 소비위축도 심각했다.

지역적으로는 울산(4.67%), 전남(4.22%), 대전(3.06%)만이 증가세를 나타냈을뿐 서울(-0.63%), 인천(-25.24%), 경기(-14.37%), 제주(-11.30%), 광주(-9.82%) 등 나머지 지역은 감소세가 뚜렷했다.

<연합뉴스>

에너지부문에 환경세 도입 추진

수도권 대기개선 재원으로 활용 / 대한상의, 지원방안마련 선행되어야

환경부가 에너지부문에 대한 환경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경제단체가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마련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대통령관한대행에 대한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우선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환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경호 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체계 개편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한다고 밝히고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는 수도권 대기개선 등 환경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환경세 도입 의견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환경세 도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환경세는 환경오염파해를 줄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생산비 상승, 수요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환경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금 환급, 면세, 세수 재투자 등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이미 환경세 가능성을 하는 각종 세금 및 부과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따라서 환경세 도입에 앞서 기존 기업관련 세제를 검토해 산업계에 추가 세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자동차 공해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버스를 7,400대까지 확대보급하는 한편 스텔버스, 통근버스, 청소차, 마을버스 등으로 차종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2005년 경유승용차 사판에 대비해 에너지상대가격 체계를 OECD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대형 경유버스 및 화물차 배출허용기준을 7월부터 강화하는 한편 황함량 30ppm의 초저황경유를 수도권에 시범보급해 대기질 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가스산업신문>

취업 성공에프엠잡-시설취업사이트(www.fmjob.com)

- 대한민국 대표 시설취업사이트(무료구인, 구직) -

주소 검색창에 한글로 "에프엠잡"을 입력하세요

공장, 빌딩, 아파트 등 각종 산업시설물 종사자를 위한 취업사이트입니다.

2003년 동남포츠서울
전자신문 선정
2003년 12월 22일자
시설취업
1위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전기공사
소방설비기사
열관리기사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시공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시설관련전직종 취업

시설전문 취업사이트

FM JOB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8 전화: 02-3482-8111(대) FAX: 02-3482-4112 직업정보제공: 강남제 2003-09호



2/4분기 예특자금 금리 동결

지원금액 줄어 대출신청 많을 듯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대출금리가 현행과 같이 동결된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ΔING 공급기반구축 Δ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Δ집단에너지공급 Δ석재산업육성 Δ장거리 송유관건설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4.7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Δ에너지 절약시설설치 Δ대체에너지보급 Δ유전 개발 Δ해와자원개발 Δ가스안전관리 Δ대체산업창업지원 등의 사업은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확정된 가스안전관리용자금은 총 380억원으로 분야별로는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부문에 98억원, LPG공급방식개선사업 55억원, 도시가스시설개선사업 212억원 등 지난해에 비해 지원규모가 30억원 줄었다. 이와 관련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안전관리용자금은 3월 현재 26억원이 대출돼 7%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지원금액이 줄어든 만큼 하반기가 되면 대출자금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에 따라 미리 대출신청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산업신문〉

부산시, 유가 상승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자발적 에너지절약시책 참여 유도

부산시는 26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점과 관련, 범시민 에너지 절약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해서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가를 유도하고 은행과 백화점 등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또 대형할인점 등에 대해서는 옥외조명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주유소와 자동판매소, 편의점 등의 조명등 과다 사용을 자제토록 당부하기로 했다.

시는 구·군 등의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시보 및 반회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열관리사업협회 광고문의
T.2679-6343

인천지역 "흡수식 냉난방기 시설관리사" 자격 교육 문전성시 이뤄

국가자격 진행 및 법정교육 부활로 인한 열관리인들의 관심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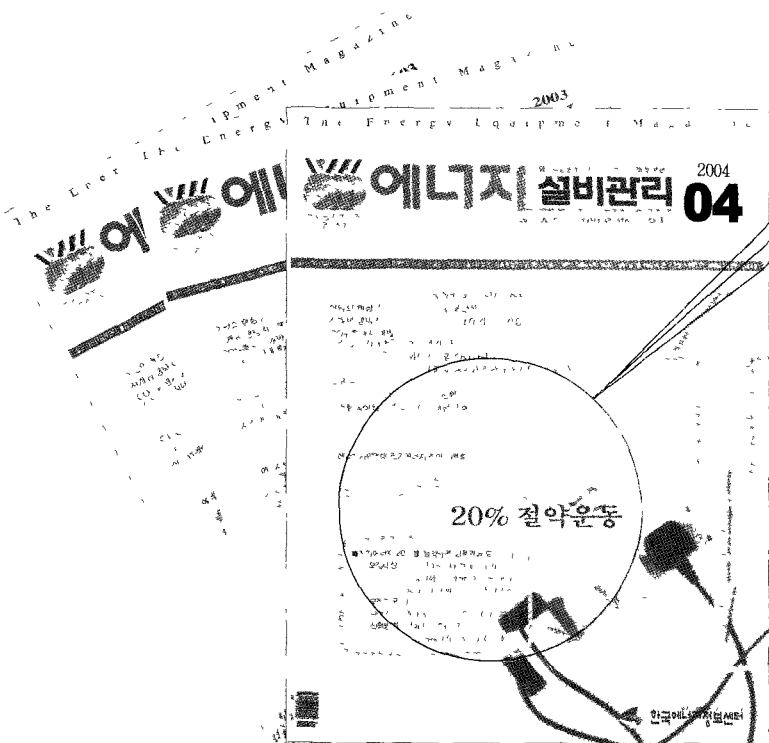
협회에서 실시하는 흡수식냉난방기 시설관리사 민간자격취득교육은 지난 2003년 국가공인 획득을 위한 우리 협회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 현재 "흡수식 냉난방기 취급 가능사"라는 명칭으로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심의 과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 본 인의 심의 과정은 1년에서 1년 반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그 사이에도 협회가 철치부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서 국가자격으로서 탄생될 수 있게 된다. 흡수식 냉난방기 시설관리사가 국가자격으로 탄생되기 전까지 우리협회에서는 現민간자격으로서 본 자격교육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협회에서 잠정적으로 세워놓은 2004년도 교육경정 횟수는 10회였다. 최근 본 자격증이 국가자격으로 신설될 수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으로 현재 많은 인원이 교육에 임하고 있다. 일례로 그동안 활동이 쇠퇴되어 가던 인천지부에 새로 취임된 조동일 지부장을 중심으로 지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중앙본부

(서울에서만 실시되던 수도권 지역의 흡수식 냉난방기 시설관리사 자격교육을 인천지역 교육에 대해서는 동지부에서 유치하여 홍보한 결과 기대이상의 교육접수자를 확보, 당초 5월10일부터 13일까지의 일정으로 1회 실시하려던 것이 교육인원의 초과로 인해 추가교육이 불가피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흡수식 냉난방기 시설관리사가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되어 가는 효과와 검사대상기조종자에 대한 법정교육의 부활로 인한 열관리사들의 인식변화가 크게 일조한 것"이라는 인천지부 관계자의 말처럼 열관리사들과 흡수식냉난방기 시설관리사들의 관심이 더욱 깊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향후 우리 한국열관리사업협회에서는 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으로 되는 과정 중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민간자격 소지자와 예정자 들에게는 협회차원에서 국가자격으로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월간 에너지설비관리



-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름
- 섹션잡지 에너지설비관리 탄생!
- 이제 에너지사용설비에 대한 관리문제는 에너지설비관리지 한권으로 해결하십시오.

에너지와 관련된 잡지는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구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큼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에너지관리자는 에너지설비관리지 한권으로 해결합니다.

정기구독 문의
T.(02)2679-6464~5

#정기구독료 캐쉬백제도 질찬 시행중#
정기구독료 3만원 돌려받자!
에너지설비관리지 구독자로서 다른 정기구독자를 유치해주시면 3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